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생산적 금융• 신뢰받는 금융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12.12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유영준(02-2100-2950)		담 당 자	서지은 사무관(02-2100-2954)	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영채(02-2100-2650)			나혜영 사무관(02-2100-2652) 허성 사무관(02-2100-2655)	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상범(02-2100-2660)			노소영 사무관(02-2100-2662)	

제 목 : 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」 최종안

□ 금융위원회는 지난 11.14일 발표한 「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」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.

○ 의견수렴결과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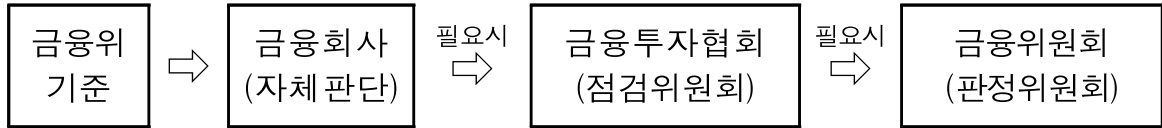
1]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·고위험 금융상품(약칭 ‘고난도금융상품’)의 기준을

○ 상품구조의 복잡성,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. (☞대책 10쪽, 25쪽)

<div> <div>상품구조</div> <div>최대손실*</div> </div>	복 잡 (파생상품 내재 등)	단 순 (주식·채권·펀드 등 일반상품)
원금의 20% 초과	< 고난도금융상품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파생상품,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(신탁·일임) ※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(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)은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식 채권(전환·교환사채 포함),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 주식형·채권형·혼합형 펀드,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
원금의 2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품구조가 복잡하나, 원금의 80%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 	

* 발행인의 신용위험(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)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

-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☞대책 26쪽)



- ②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(1~3년)보다 단축하여 "1~2년"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(☞대책 14쪽)

- ③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*도 이에 포함하여 엄정제재하겠습니다.
(☞대책 14쪽)

* (예)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·중수익 상품으로 판매

- ④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.(☞대책 18쪽)

<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예시) >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투자대상 특정여부	▪ 투자대상·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,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, 시장동향 등을 논의
②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약	▪ 펀드 설정,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
③ 입증가능성	▪ 운용사-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,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지·관리

※ ①, ②, ③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협약의 여부 판단

⑤ 은행장 간담회 후 추가 사항

○ 지난 11.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나,

-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옴

⇒ 감독·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(☞대책 11쪽)

< 은행권 건의사항 >

○ (대상상품) ①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②공모로 발행되었으며, ③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(ELT)에 한해 판매 허용

- 다만,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(KOSPI200, S&P500, Eurostoxx50, HSCEI, NIKKEI225)로 한정

○ (대상규모) ELT 판매량은 '19.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

○ (관리방안)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,

-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*를 철저히 준수하고,

* ①녹취·숙려 적용(일반투자자), ②핵심설명서 교부(개인투자자), ③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, ④영업행위 준칙 적용

-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(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 의무, 부당권유 금지)를 엄격히 적용

* 이상거래 여부(대형거래, 잦은거래,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) 모니터링, 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

< 금융당국 보완장치 >

○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

-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

○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

-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(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부당권유 금지) 적용
-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(공모)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(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)

□ 금융위원회는 동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 11.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 (끝)

별첨 : 「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」 최종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